

전라문화총서 5

전북 생활문화 100년

이정덕 외 공저



전주시립도서관



EM0154627

전라문화총서 5
전북 생활문화 100년

인쇄일 - 2001년 2월 10일

발행일 - 2001년 2월 25일

지은이 - 이정덕 외 공저

기획·편집 -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063-270-3273)

발행인 - 서 정 환

발행처 - 신아출판사

출판등록 · 1984년 8월 17일 제28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전 화 · (063) 275-4000 · 252-5633

팩 스 · (063) 274-3131

천리안 · shina321@chollian.net

인터넷 · 홈페이지 www.shin-a.co.kr

전자우편 shina@shin-a.co.kr

값 10,000원

ISBN 89-7171-663-0 93380

※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여가생활

- 집안 여가생활의 변화 / 8
- 바깥 여가생활의 변화 / 14
- ◇ 노래의 변화 / 21
- 어린이 놀이의 변화 / 28
- ◇ 의식과 생활변화 / 35
- 매춘의 변화 / 42

일상생활

- ◇ 농촌 생산활동의 변화 / 50
- ◇ 어촌생활의 변화 / 56
- ◇ 주거생활의 변화 / 63
- 난방시설의 변화 / 68
- 의복의 변화 / 75
- ◇ 의술의 변화 / 82
- 쓰레기처리의 변화 / 89

명절과 절기

- 설의 어제와 오늘 / 96
- 정월대보름과 당산제 / 103
- ◇ 화전놀이와 관광여행 / 110
- 단오와 축제 / 116
- ◇ 술맥이와 바캉스 / 123
- 추석의 변화 / 130
- 동지와 크리스마스 / 135

일생의례

- ◇ 출생과 육아 / 142
- ◇ 성년과 결혼 / 149
- ◇ 상례의 어제와 오늘 / 156
- 사후세계관과 제사 / 163

종교생활

- 당산과 마을신앙 / 170
- 굿과 무속신앙 / 177
- 집과 가택신앙 / 184
- 8 축간과 민간신앙 / 191
- 4 도깨비이야기와 도깨비신앙 / 200
- 기독교의 전파와 생활 / 207

친족과 가족생활

- 4 양반과 족보 / 216
- 문중과 시제 / 223
- 친족관계 / 230
- 여성과 가족생활 / 237
- 가사생활의 변화 / 244

사회조직과 관계

- 두레와 생활 / 252
- 9 계와 생활 / 259
- 각종 읍과 생활 / 265
- 공적 조직과 생활변화 / 272
- 근대기업 조직과 생활 / 278

교육, 교통, 통신과 생활

- o 교육기관의 변화와 생활 / 286
- 교통의 변화와 생활 / 292
- o 통신과 생활 / 299

21세기 전북

- 공업사회에서 문화산업사회로 / 308
- 2050년대의 전북 / 315

외식과 생활변화



이 정 덕

외식산업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자주 바깥에 나가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발전하는 것이다. 집 밖에서 사먹는 것은 모두 외식이지만 여기에서는 가족이 나가서 먹는 것을 외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도 전라북도에서도 외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막이나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먹는다 할지라도 이를 외식으로 생각한 경우는 없었다. 외식이란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여성들의 직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생활이 그래도 나아진 1980년대 이후이다. 이때부터는 집안에서 밥을 해먹을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 또는 맛있는 것을 사먹기 위해 음식점으로 나가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 직장에 다녀온 아내가 밥준비나 설거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쉴 수 있게 되고 아내에 대한 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셈이었다. 동시에 집안의 일상적인 음식을 벗어나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가족의 외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00년대 전라북도 사람들은 걸어서 읍이나 전주 또는 서울로 갔는데, 가는 길목에는 술과 밥을 파는 주막들이

1900년대는 장터주막서
국밥·술 등 팔아
시장통에 일반인 상대
값싼 밥집 점차 늘어
자유당시절엔 대부분
직장인 도시락 지참

있었다. 먼길을 가는 경우에는 주먹밥이나 고구마나 감자 등 먹을 것 몇 개 싸가지고 걸어가거나, 주막에 들러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잠도 자고 한다. 장이 서는 날이면 주막집에 들러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터에는 주막거리가 크게 번성하여 장국밥, 비빔밥, 콩나물국밥, 국수 등을 파는 노천음식점들은 전주 풍남문 앞에서도 번성하였다.

일제가 군산을 통해 전라북도에 진입하고 군산, 이리, 전주가 커지면서 식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소위 직장인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군산부두가 번창하면서 점심 때 밥을 사먹는 사람이 조금씩 늘었다. 아니면 저녁에 같이 나가 밥과 술을 사먹는 경우도 늘었다. 또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 사업가들이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관리들과 요정에 가는 경우도 늘었다. 이들 요정은 관청이 가까운 고급 한옥에 들어선 경우가 많았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값싼 음식점들도 점차 늘었다. 시장통에 많은 밥집이 생겨 전주 남문시장, 군산역 앞의 군산시장 등에 값싼 국밥이나 국수를 파는 음식점이 일제 시대에 크게 늘었다. 군산이나 전주 등지의 시내 중심가에도 시내에 나온 사람이나 또는 주변에서 일하는 상인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들이 점차 생겼다.

하지만 일제시대에서 자유당시절까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였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월급으로 날마다 식사를 사먹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던 것이다. 학생들은 더더욱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



다. 따라서 날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싸야하는지 주부들의 고민이 많았다. 병에 김치를 담고 도시락에 계란말이와 몇 가지 반찬을 넣어도 최상의 도시락이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점차 소시지 등의 고기류도 도시락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식당은 대체로 근무가 끝나고 저녁에 술을 같이 파는 선술집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전주에서도 해방 이후 동부시장입구에서 공보관(현재 우체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미단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의 막걸리집 겸 밥집이 번성하였다. 시내 중앙동에는 성미당 등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주비빔밥 식당 등이 계속 번성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분식점 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전주 성심여중고 앞의 분식점들은 지금까지 계속 번성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다양한 음식점들이 시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시내에 고기를 구워먹는 식당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고, 군산 해안가에는 횃집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각종 놀이터나 행선지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전주 등 내륙 지역에도 횃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원양어선을 통해 잡아온 참치집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자가용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가든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지닌 교외의 고기집들이 대대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특히 전주에서 정읍 등의 중소 도시에 이르기까지 길목이 좋은 곳이나 계곡과 하천에는 가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시내 중심가에 서 고기를 파는 식당들은 위세를 잃게 되고 점차 차를 타

60년대 값싼 중국음식점
크게 유행
.....
서구음식 등장 후 우리
입맛 달라져
.....
이젠 소득 10%를
외식비로 지출

고 쉽게 갈 수 있는 커다란 길목에 큰 음식점들이 위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외의 식당 뿐만 아니라 시내의 식당들도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들 음식점은 단순한 외식 장소가 아니라 동창회나 계 또는 각종 모임을 가지는 장소였다. 물론 집안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핵가족이 되면서 집안도 비좁고 또한 음식점만하기도 만만치 않아 갈수록 모임을 음식점에서 가지게 되어 음식점이 활성화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이 다양해지고 보편화 되었다. 사진 위는 1900년대 주막에서 밥과 막걸리를 먹는 모습이며, 아래 사진은 서구화된 현대식 음식점의 모습.



외국음식도 그 동안 크게 변해왔다. 해방 이후 군산이나 전주에 남아 있던 중국사람이나 또는 해방 이후 돌아온 일부 중국사람들이 점차 중국음식점을 열기 시작하였다. 전주의 전통성당을 짓느라 중국사람들이 1907년에 이미 들어와 있어 이들을 위한 중국식당이 존재했을 것이지만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해방 이후 중국에는 없지만 한국사람의 입맛에 맞아 많이 팔렸던 짜장면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미국에서 들어온 값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 음식값도 저렴하고 또한 밥과 다른 특이한 맛이 있어서 최대의 외식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을 정부가 규제할 정도였다. 특히 군산이나 전주에 중국집이 번성하였다. 전주에서도 아서원이 유명했다. 점차 한국사람들도 진출하여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화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결국 한국사람들이 대부분의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불어난 중국음식점들은 대부분 한국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70년대 전주, 군산을 비롯해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양식집이 각 시내중심가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칼과 포크로 먹는 경양식은 웬지 품위를 지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한 분위기가 서구적이어 청춘남녀들이 연애하면서 많이 들리는 곳으로 점차 대학교 앞으로 확산되었지만 지금은 그 기세가 주춤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서구식으로 튀긴 통닭이 크게 유행하였다. 외국의 것을 모방한 동네 치킨점들이 날로 확산되어 되눅게 들어온 서구의 치킨식당들은 커다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식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밀려나고 만 것이다. 또한 피자집도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금은 가장 인기있는 서구음식으로 등장하였다. 전주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집집마다 쉽게 전화로 주문하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웬디스, 빅보이, 맥도날드, 롯데리아의 햄버거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햄버거 집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지만 아직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1990년 후반에는 패밀리 서구식 레스토랑이 등장하여 점차 깔끔하고 화려한 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전주에는 1990년대 후반 서구식 패밀리 레스토랑이 깨끗하고 서구적이며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나 이제 이들도 여럿이 생겨 이들 사이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들이 생기자 이제 면지역에 이르기까지 음식점이 포화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식점들도 대부분 전문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면 어느 식당을 가야한다는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고기전문, 오리고기전문, 만두전문, 냉면집, 김밥집, 철판구이전문, 죽전문, 한정식전문, 해물탕전문, 보쌈전문 등 자신의 전문분야만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색있게 장식한다든지, 인터넷과 연계한다든지, 대형으로 만든다든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음식점들이 한 지역에 집중하여 사람들을 멀리서부터 끌어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정읍, 남원, 김제 정도의 중도시까지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당을 골라가면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득이 크게 높아져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놀러다니다 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또는 심심풀이로 주말저녁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크게 많아졌다.

점심을 위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직장인이 크게 줄고 대신 근무지에 인접한 식당이나 때로는 차를 몰아 멀리 점심을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외식비가 늘다보니 전북의 도시지역에서는 대체로 소득의 10%정도를 외식비로 지출하고 있다.

화전놀이와 관광여행



이 종 진

음력 삼월이 되면 날씨가 온화하여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나는 시기이다. 이 때가 되면, 식물에만 생기가 돋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생기가 도는 시기로 농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삼월 삼짇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하는데, 자기 집에 제비가 가장 먼저 들어오면 길하다고 하여, 이 제비를 본 사람은 손님 왔다고 알리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봄이 완연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무리를 지어 산과 물가에서 하루를 즐기는데 이것을 '화전놀이' 또는 '화류놀이'라 한다. 삼월 삼짇날을 전후하여 화창한 날을 골라 제각기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산기슭이나 계곡에 자리를 잡고 해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하루를 즐긴다. 화전놀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세시풍속으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행되어 왔다. 화전놀이는 오랜 역사만큼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적 풍류를 엿볼 수 있다.

화전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양세시기』의 삼월조에 보면 “서울의 버들과 꽃은 3월에 성하여 남산의 잠두와 북한



글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서
당호장 등 어른들과 함께 강
가로 화전놀이를 나온 모습

산의 필운대와 세심대는 놀이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같이 자욱하여 한 달 동안 줄어들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시조에서도 화전놀이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여 당시의 화전놀이도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일부 농촌에서만 잔존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을 뿐 거의 사라진 옛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화전놀이는 사라졌지만 이와 유사한 화전놀이가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화전놀이로 봄나들이 관광여행, 벚꽃 축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소풍, 모꼬지(MT) 등의 풍속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전북 지역 어디를 가든 화전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흔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마을에서 삼월이 되면 이루어지던 풍경이 화전놀이이다.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의 경우 마을 여자들이 배미산에 가서 진달래전을 부쳐 술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한다.

그리고 이날엔 제비를 보면 손을 흔들어 반기는데, 나비를 보면 일년 동안 멍만 부리고, 개미를 먼저 보면 열

삼월 삼짇날 전후로
 행해진 전통 세시풍속
 진달래꽃·배꽃 등
 전부쳐 먹으며 풍류 즐겨
 70년대 이후 버스유람하는
 '관광계'로 대체
 소풍·모꼬지 등 교육보다
 놀이문화로 변화

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한다. 화전은 찹쌀 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떡으로 계절에 따라서 진달래꽃, 장미꽃, 배꽃, 국화꽃 등을 부쳐서 지진다. 삼월 화전놀이는 주로 진달래꽃을 넣어 전을 부쳐먹고, 가을 화전놀이는 국화꽃을 넣어 부쳐먹는다.

화전놀이는 날을 잡아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를 교육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마을에 새롭게 시집온 여인이나 새로 성인이 된 여인에게 마을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마을 어른들의 특징을 인지시켜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의 종가댁은 어느 집이며, 그 집의 특징은 어떠하며, 집안 어른의 성격은 어떠하다는 것을 상세히 알려 준다. 그리고 마을 사람 중 누구는 성격이 어떠하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어느 집안에는 환자가 있으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화전놀이를 통해 새로 시집온 여인의 특징을 파악하여 앞으로 마을에 일이 생기면 해야 할 일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는다. 새로운 구성원은 화전놀이를 통해 완전한 공동체 성원이 되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교육의 장이며, 놀이의 장이 화전놀이인 것이다.

이러한 화전놀이는 일제시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는 한국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노는 것을 억압하였으며 물자가 크게 부족하여 평야지대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봉 등지의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방 후에도 산간지역에서는 행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점차 60-70년대 이후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나가는 관광계로 대체되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화전놀이는 볼 수 없지만, 화전놀이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봄나들이다. 끼리끼리 마을에 맞는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과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는 여전히 생동하는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삼월이면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명소를 찾는다. 그 중 만개한 매화꽃과 벚꽃을 찾는 사람이 많다. 전주와 군산간 번영로 백 오십 리 길은 벚꽃은 가히 장관이다. 오백리길이 벚꽃구경인파로 교통이 마비되기 일쑤이다. 여기에 벚꽃 축제라는 새로운 축제가 생겨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송광사 입구 벚꽃 터널은 바람결에 날려 떨어지는 벚꽃잎은 하얀 함박눈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화전놀이 장소이다.

화전놀이의 다른 모습은 학교에서도 보인다. 누구나 학창시절 봄 소풍, 가을 소풍, 수학여행 등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설레이는 마음으로 관광버스에 몸을 담고 전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고, 버스 안에서 노래부르고 춤추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를 통해, 교실에서 공부했던 역사의 현장과 산업 현장을 돌아보는 교실 밖의 수업이며 놀이이다. 이러한 소풍과 수학여행도 과거 조상들이 하던 화전놀이가 아닌가.

대학에서 학과 선배 후배가 함께 하는 모꼬지(MT), 동아리에서 떠나는 모꼬지, 대동제 등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장이다. 피끓는 젊은이들이 모였으니 어찌 술이 빠질 수 있겠는가. 처음 마셔 보는 술이기에 사양해 보지만, 하늘같은 선배님의 권유는 뿌리치기

쉽지 않다.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새내기 모습은 대학가 삼월의 새로운 풍속이다. 대학생이 되어 대학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화전놀이이다. 어른들은 봄이 되면 관광버스를 불러 전국 유명 관광지를 향해 떠난다. 그들은 버스에 갖가지 음식과 술을 준비한다. 그리고 버스에 오르자 간단한 사회자의 안내 말씀이 끝나면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킨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노래를 한 곡씩 뽑는다. 이러한 곳에서 노래 한 곡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빠른 음악 소리에 맞추어 몸을 흔들며 춤을 춘다. 정신없이 몸을 흔들어 춤을 추다 보면 온 몸이 땀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술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며 친숙함을 표현한다. 이 또한 현재의 관광버스 화전놀이가 아니겠는가.

화전놀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의미는 화전놀이는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그 시절에 피는 꽃을 넣어 가며 맛과 멋을 부려먹었던 것이다. 둘째 화전놀이는 즐겁게 노는 것이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여가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는 것이다. 셋째 화전놀이는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교육 현장이다.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의 내적 질서를 전승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의 화전놀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도구로 적절하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화전놀이는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따스한 전주~군산간 벚꽃길
은 요즈음 시민들의 봄맞이
놀이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화전놀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화전놀이 전통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약간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을 뿐이다. 먹는 것, 노는 것, 교육하고 교육받는 것 중에서 교육받고 교육하는 것은 축소되고 노는 것과 먹는 것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즉, 교육 현장으로서 역할보다는 놀이 현장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 교육과 놀이가 분리되어 화전놀이는 놀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전통이란, 항상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결합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데, 화전놀이 또한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술메이와 바캉스



김 성 식

이제 더위도 막바지이다. 안간힘을 다하여 울어대는 매미소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을이 발치까지 왔다는 전령으로 들린다. 올 여름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오곡과 백과가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한다. 탐스럽고 단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여름의 불볕 더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비록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농산물이 무르익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달콤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끝내고 각자의 일터로 복귀했을 터이다. 지금의 휴가는 보통 유명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주류를 이룬다. 심산계곡을 찾아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식히거나, '별이 쏟아지는 해변'을 찾아 바닷가의 낭만을 만끽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레저산업의 발달로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XX랜드'나 'XX월드'나 또는 'XX호텔' 등에서 패키지로 제공되는 상품을 통하여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기기도 한다. 이를 일러 '바캉스'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바캉스는 이제 하나의 문화코드화 되었다. 각종 매체에서 제공되는 바캉스상품은 가히 홍수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적 바캉스의 공통점은 가족단위라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핵가족화로 압축되는 가족사회의 분화와 마이카시대로 불리

가장 힘든 논매기작업
 끝낸 후 하루 택일
 들독들기·삼동굿놀이
 즐기며 맘껏 놀아
 집단적인 삶 추구·농사일
 순박함 엿보여

는 문명의 발달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사회의 분화와 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삶의 해체 내지는 파괴를 낳는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술멕이'라는 마을공동체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지향하였던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다.

술멕이는 음력 7월 칠석날이나 7월 보름인 백중날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즐기는 농가의 휴일이자 마을잔치이다. 이 날은 농사일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면서 막바지인 논매기 작업을 끝낸 후에, 논매기에 쓰인 호미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어 씻어서 걸어 놓는다고 해서 '호미씻이'라고도 부른다. 술멕이 날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모정이나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서 마을총회를 겸하여 풍물을 치거나, 노동요를 부르며 하루를 즐긴다. 또 마을에서는 농사가 제일 잘된 집 머슴을 황소나 사다리에 태우고 동네를 한바퀴 돌기도 한다. 이른바 장원례 풍속이다. 또는 마을을 상징하는 마을기를 세우고 한데 모여 술멕이 행사를 하기도 한다.

음력 7월 칠석날에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뒷골마을에서 술멕이행사가 있었다. 이 마을은 해마다 술멕이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특히 과거에 농사과정에서 불렀던 '노동요' 이른바 '들노래 마을'인데, 오직 이 마을에서만 전승되는 들노래가 잊혀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술멕이행사를 통하여 "두월리 들노래"를 재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들노래와 함께 이 마을에서는 정자나무 아래 서로 다른 크기의 '들독'이 있는데, 들독들기를 하며 하

전북 생활문화 50년

루를 즐기기도 하였다. 들독은 둥그런 알처럼 생긴 돌로써 나이나 체격에 맞춰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다. 들독 중에서 끌머슴용이 있는데 주로 청소년용이다. 이 돌을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리거나, 들어서 어깨 뒤로 넘기게 되면 원품(어른 몫)으로 간주하여 두레라는 노동조직에 포함시켜 준다. 이를 장원레라고 하는데 일종의 성년식이다. 그 밖의 들독은 주민들의 힘자랑용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난 7월 백중날에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에서는 “삼동굿놀이”가 행해졌다. 삼동굿놀이는 음력 7월 보름날에 이웃하는 세 개의 마을이 마을기를 앞세우고 한 마을에 모여서 농신(農神)께 제의를 드리고 난 후에, 민속놀이를 통하여 대동단결과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민속의례이다. 특히 삼동굿놀이에서는 삼신할머니인 ‘삼시랑’ 상을 차려놓고 숯과 고추를 끼운 금줄을 둘러친 후에 아기의 출산을 기원하고, 출산한 세 명의 어린이가 입신양명하는 과정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표현한다. 이는 모두 풍년농사를 상징하는 의례에 해당된다.

전주시 삼천동에 소재하는 4개의 마을이 ‘기점놀이’라는 이름으로 펼친 술멕이는, 그 다음날인 양력 8월 15일에 있었다. 함대, 용산, 정동, 비야마을이 함께 한 술멕이에서는 본래 ‘깃점’이라고 불리던 ‘기점놀이’를 중심으로 치루어졌다. 일명 ‘계룡합굿’이라고 하는 기점놀이는 지금의 삼천동, 평화동 일대에서 일제 때인 1940년경까지 각 마을에서 성행하던 술멕이였다. 이 행사는 한 마을에서 술멕이를 할 때 이웃 마을을 초청하여 함께 놀되, 각 마을의 권위를 상징하는 커다란 용기를 앞세워 마을세를 과시하거나, 형과 동생마을이라는 서열을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목적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차피 농사일이라는 것이 서로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한 노동력에 대한 감사의 뜻에 있다고 하겠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마을 술맥이 때는 마을 주민 모두가 모정에 모인다. 만약 누구라고 모정에 나오지 않거나,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마을 좌장어른한테 '쑤대'로 매를 맞는다. 주민이 다 모이면 마을 부잣집에서 닭잡고 술을 낸다. 이 마을 술맥이에서는 '진서술'을 내는 풍속이 있다. 진서술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동안 어리다는 이유로 '원품'이 아닌 '반품'으로 쳐주던 품삯을 들독을 드는 것이나, 평소에 일하는 것을 지켜본 어른들이 '그만하면 쓰겠다'고 성인으로 대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동네에 내는 술을 말한다.

이 밖에도 전북지역의 여러 마을에서는 농경사회의 풍속인 술맥이가 지속되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에서는 세벌 김매기가 칠석날 안에 끝나면 칠석날에 술맥이를 하였고, 늦어지면 백중에 술맥이를 하였다. 이날은 머슴날이라 하여 호미씻고, 발씻고, 손씻고 농사짓던 모든 피곤을 씻어버리고 노는 날이다. 특히 이 마을 술맥이 때는 씨름판이 벌어졌다. 구미리는 마을 모정이 4곳이나 되어 나이에 따라 청장년들이 나뉘어서 술맥이를 하기도 하였다.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검지마을 술맥이는 우물물을 모두 퍼내고 깨끗이 청소한 뒤에 지내는 '시암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돼지를 잡고, 부잣집에서 술을 제공하고 풍물을 치며 노는데, 보통 2-3일 동안 계속되었다.



음력 7월 칠석날이나 7월 보름인 백중날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즐기는 농가의 휴일이자 마을잔치인 '술막이날'에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모정이나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 마을총회를 겸하여 들독들기, 삼동굿놀이를 하며 하루를 즐긴다. 사진은 암실군 삼계면 두월리의 술막이 행사(위)와 전주 기잡놀이 모습(아래)



진안군 마령면 원평지에서는 술막이날에 반드시 '초로길'부터 댕는다. 초로길이란 나무하러 다니는 길로써, 여름 장마기간에 무너진 축대나 유실된 도로를 댕어야 주민들이 여름에 보리풀을 하거나, 가을에 땔나무 또는 퇴비장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마을의 술막이는 마을 공동부역을 하기 위한 목적도 겸하고 있다. 즉 오전에 초로길댕기를 하고, 오후에 술막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마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던

여름 휴식을 위한 농경세시풍속이 술맥이이다. 과거의 농촌은 절대가난의 연속이었다. 참으로 가난했던 시절, 부잣집으로 품팔러 가면 자식들 밥얻어 맥일 요량으로 눈치껏 데리고 다니는가 하면, 홑옷만 입고 엄동설한을 견디던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는 고깃국 먹을 기회가 일년이면 명절날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술맥이날이다. 심지어 '명절에는 고깃국 못먹어도 술맥이날에는 먹었다'고 한다. 술과 풍장에 얼큰해지면 이유도 뜻도 없이 서로 떡살을 잡고 싸움질도 많이 하였다.

묵은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도 아닌데 괜한 시비와 싸움이 빈번한 것도 술맥이만의 풍속이었다.

그러다가도 풍장소리에 신명이 나면 언제 싸웠던냐 싶게 풍장패를 앞세우고 부잣집으로 쳐들어간다. 그러면 부잣집에서는 또다시 술동우를 내놓거나 닭을 잡는다.

일제 때까지도 성행하던 농경풍속은 해방과 분단이라는 민족사의 혼란기,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상당부분 맥이 끊겼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전통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부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듯 술맥이는 함께 일한 사람들이 휴식과 놀이를 함께 즐기던 풍속이다. 술맥이를 보면 농사짓고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의 삶이 보인다.

그것은 한마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란 공동체적 또는 집단적 삶을 지향하는 세계관이며, '보다 자유롭게'에는 상하의 계층이나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삶을 실천하는 민주적인 의식이 투영되어 있으며, '보다 풍요로운 삶'에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극히 보편적인 지혜가 담겨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에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농업에 기반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추석의 변화



이 정 덕

가을에 일년간의 결실에 대해 신이나 정령에게 감사드리는 의례는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중추절은 일년 중 가장 밝은 달이라 생각하면서 풍요를 감사드리는 제례를 조상께 드리고 우리처럼 각종 음식과 떡을 해 먹고 신나게 놀았다.

중국에서는 월병이라 불리는 우리의 송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먹는다. 월병은 달떡이라는 뜻인데 우리처럼 콩고물뿐만 아니라 설탕, 각종 양념, 밤, 마른 과일편 등을 넣어 만들어 이웃집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때는 도시로 이주한 가족들도 고향으로 모이곤 한다. 물론 설날보다 덜 하지만 추석 때에도 수억명이 고향을 방문하여 우리처럼 교통이 혼잡해진다.

동남아 산악부족들은 수확할 때, 벼를 잘라 나무로 만든 작은 집에 넣어서 보존하는데 이들은 벼에 정령이 있어 잘 모셔야 내년에도 수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제당 앞에서 자주 빈다.

캐나다와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영국인들이 인디언땅에 처음 도착해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심어 수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날로 여호와 신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터키를 굶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 이 때는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귀향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고속도로가 우리처럼 봄비는 그러한 계절이다.

20세기초까지도 일부 유럽농촌에서는 수확할 때 곡물다발을 묶어 다음 수확 때까지 곡간에 모셨는데 이렇게 하면 곡물정령이 잘 보존되어 다음 해에 파종할 때 활발하게 번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도 수확할 때는 각종 음식과 맥주를 마시면서 즐겼다. 영국 요크셔에서는 젊은 남녀가 불 주위에서 서로의 얼굴을 검게 칠하면서 춤추며 즐겼다.

인디언들도 가장 잘 익은 옥수수를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 곡물 창고에 넣어두고 사흘밤동안 그것을 지켰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좋은 옷으로 옥수수를 싼 후, 이를 숭배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들 옥수수정령의 도움으로 내년에도 옥수수가 풍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 이전부터 추석과 같은 추수의례가 행해졌다.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동맹, 예, 마한 등지에서 10월이면 귀신에게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가을 추수를 마친 후 신에게 감사드리고 신의 품안에서 음주가무를 행하는 그러한 축제였다. 이렇게 신과 정령에게 제사를 지내야 내년에도 풍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현재의 추석은 신라시대에 발해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고려, 조선시대에도 추석은 커다란 명절이었다. 조선시대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사대부의 집에서는 한식과 추석날 산소에 가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데, 한식보다 추석에 더 풍성하게 지낸다고 하며 또한 이날에는 아무리 벽촌의 가난한 집안이라도 禮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차례음식도 만들며,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놓고 즐거이 놀면서 하는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

라"고 한다고 하였다.

1950년까지도 추석은 전라북도 농촌과 어촌에서는 햇곡식으로 떡과 음식을 장만하여 집의 수호신인 성주에 고사를 지내거나 배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성주는 집안에 있는 신들 중 집안 주인이다. 먼저 떡, 미역국, 나물, 탕 등의 제사음식을 곡간에 놓았다가 다음에 방 옷목이나 한쪽 옆에 놓고, 안주인이 성주에게 가내평안과 건강을 공손히 빌면 된다.

장수 등 산간 마을에서는 햇벼를 베어 그대로 묶어 방문 앞에 달아 놓고 절을 하기도 한다. 덜 익은 벼를 찢다음 말린 것을 샘, 당산, 마당, 곡간에 놓기도 한다. 어촌에서는 햅쌀로 밥을 하고 떡, 나물, 탕 등을 마련하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집안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조상신들에게 올 한해 동안 풍요롭게 해주셔서 또 재해를 주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상신과 다른 신들이 감동하여 내년에도 더욱 더 풍년이 들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씨름대회, 널뛰기, 그네 타기 등을 행하는 곳도 있었고 풍물을 치기도 하였다. 제기차기나 빵울치기 등을 하면서 동네꼬마들은 공터에서 신나게 놀기도 한다.

놀이는 남았지만 각종 신과 정령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추석에 이들 신에게 각종 고사를 지내는 것도 1960년대 이후 크게 줄었다. 벼를 잘라 문간에 걸어두는 관습도 1970년대를 기점으로 사라졌다.

1970년대에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공단으로 일하러 간

'풍년기원' 의미 잃자

농촌서 추석 쉼 필요 없어

도시에서 맛있는 음식먹고

게임 등 놀이에 치중

형이나 누나들이 각종 종합선물세트나 여러 선물꾸러미를 들고 농촌에 돌아와 농촌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된다. 친척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서울소식 등을 한꺼번에 나누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 추석 등이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와 기차가 사람으로 혼잡해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을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북적거리고 서로 인사를 하며 덕담을 하여 흥분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야말로 오랜만에 맛있는 제사음식과 과일들을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때로는 밤, 대추, 홍시를 따는 재미도 있었다. 어른들을 따라서 차례를 지내고 앞산에 올라가 성묘를 하다 보면 금새 저녁이 되곤 하였다.

지금도 추석은 햇곡식으로 밥과 떡을 지어 술과 음식을 갖추어서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내며 수확을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러나 이제 차례와 성묘를 지내기는 지내되 조상신이 풍년을 가져다주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비료 잘 주고 비가 적당히 오고 날씨가 좋아 풍년이 되었지 조상신이나 정령이 도와줘서 풍년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차례가 풍년과 관계없이 그저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보다 세속적인 행사들을 추석에 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농촌에서는 귀향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이날 각종 초등학교의 동창회 및 체육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노인잔치를 따로 마련하는 동네가 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보다 월급을 타서 먹고 살기 때문에 풍년보다는 쉬고 논다는 의미가 더욱 커지

고 있다. 즉, 추석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다 보너스까지 탈 수 있는 날이니 좋은 날이다. 이렇게 신에서 멀어지니 구태여 농촌으로 추석을 쇠러 갈 필요가 없다. 부모가 자식이 있는 서울이나 도시로 와서 같이 차례 지내며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석도 점차 조상숭배보다는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세상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그러한 날로 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추석에 콘도나 외국에 놀러 가서 차례를 지내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차례를 대충 지내고 놀러 다니는 재미에 추석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추석 때 빨리 놀러가기 위해 별초와 성묘를 미리 하는 집도 많다. 물론 추석 때 차가 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많지만.

동지와 크리스마스



이 종 진

동지는 빨간 팔죽을 끓여 문밖에도 뿌리고 집안의 여러 곳에 뿌리기도 한다. 또한 상에 차려 장독 등에 놓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빨간색이 온갖 잡귀를 쫓아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지는 일년 중에 가장 밤이 길어 온갖 잡귀가 활동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나쁜 귀신들이 날뛰는 날이기도 하다. 빨간 음식을 먹고 빨간 음식을 여기 저기 뿌려두면 빨간색이 귀신을 쫓아 내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태양이 본격적으로 길어져 부활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도 원래 로마의 동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원래 예수가 탄생한 시기는 봄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에서 기독교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처음 지키기 시작한 것은 336년이다. 로마에서는 하루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보고 이날을 축제일로 삼아 농업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로마에서도 우리의 동지와 같이 이날은 신나게 놀면서도 밤에는 불을 켜고 빨간색으로 잡귀를 막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일을 태양의 탄생일과 맞춤으로서 로마인의 명절을 포섭하면서 이들에게 기독교를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다시 낮이 길어지는 시점
'태양의 부활일'로 보고
축제일로 삼는 점 같아

유럽이 14세기 이후 세계정복에 나서게 되고 기독교도 이에 앞장서
게 되자 기독교는 곧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다. 기
독교도가 별로 없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성탄일은 연말의
흥겨운 기분을 자아내는 날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해
방이후 기독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라디오와 방송에서 연말을 성탄절
과 캐롤로 장식하게 되자 크리스마스가 연말의 분위기를 주도하여 농촌
에서도 동지를 지키던 관습이 청장년층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부분 사
라졌다.

양력을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한해의 마지막달
인 12월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12월은 개인적으로는 지나온 한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
는 새해를 준비하는 달로서 송년회와 같은 모임으로 분
주하게 보낸다. 그런데 여기에 크리스마스까지 합류하여
더욱 송년의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하고 24절기를 사용하던 우리민족에게는 최근에 생
긴 풍속중의 하나가 크리스마스이다. 24절기를 사용하던
우리에게도 양력 12월은 음력 동지달에 해당하는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다. 음력과 24절기를 사용하던 때에는 동지
가 커다란 명절이었지만 양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
대에 크리스마스가 커다란 명절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12월의 중심 명절이 동지에서 크리스마스로 전
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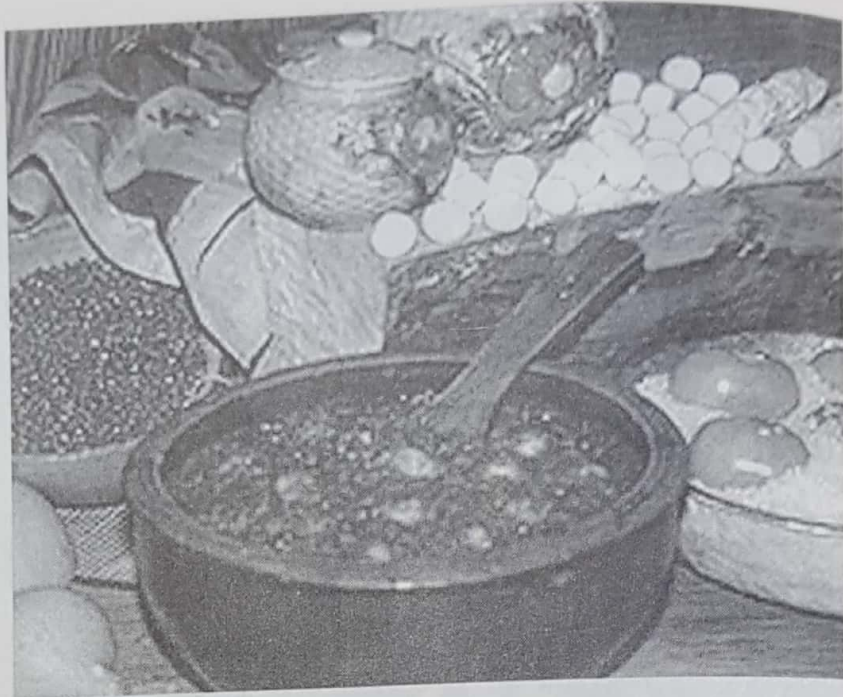
12월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풍속 중 가장 성대하게 이
루어지는 예수 탄생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다. 하지
만 아직도 전통문화의 유습이 남아 12월 22일 "동지" 또
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년층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톰의 태양 탄생일인 12월
25일에 맞춤으로써 더욱 의미
있게 된 크리스마스가 서구
문화의 유입과 함께 우리나
라에 들어와 이제는 주요 축
제일이 되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문화와 함께 근세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대표적 풍속이다. 100년 전까지만 하여도 양력 12월에 가장 큰 명절은 동지였다. 이제는 동지가 크리스마스에 자리를 내어 주고 말았다. 12월이면 화려하게 치장한 교회의 십자가와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전주시 팔달로 서중로타리에 자리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한껏 분위기를 잡는다. 그리고 시내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캐롤송 멜로디에 구세군 자선냄비의 낭랑한 종소리가 추운 겨울에 소외받는 이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썬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등의 선물보따리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소외받는 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희망을 주는 날이다.

동지인 12월 22일은 일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긴 날
로 다음날부터 낮이 길어지
므로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
하는 날이라 하여 천지신과
조상에 제사를 모셨다.
사진은 동짓날 먹는 팔죽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들어 온지 100여년, 이렇게 12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와 함께 밀려온 서구 문화였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문화이다. 비슷한 시기인 동지인 22일이 과거의 문화였다면, 25일 크리스마스는 현재의 문화인 것이다. 요즘 세대에서 동지는 거의 잊혀지고 크리스마스만이 선명하게 자리하며, 이제는 우리의 곁에서 멀어지는 동지를 대하며 노인들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수 백 년 동안 지켜 오던 동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했겠는가?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향유해 왔던 동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여겨진다.

동지가 지나는 자연의 순환성과 시간성에 눈을 돌려보고자 한다.

24절후의 하나인 동지는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하루의 해는 여름이 극에 달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여 동짓날
극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극에 달한 해는 다시
이튿날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다. 동짓날이 자월(子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동자월(冬子月)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동짓날이 정월달로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동지를 새고 나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을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
하는 날이라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고, 태
양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동짓날에
천지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임금도 신하의 조하
(朝賀)를 받고, 군신의 연예를 받들기도 하였다. 민간에
서는 동짓날을 흔히 '작은 설'이라 하여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 가는 작은설의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풍습은 최근에까지도 여전히 내려
와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팔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니면 집안에 따라 조금
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침이나 저녁에 찹쌀가루로 새알심
을 만들어 넣은 팔죽을 끓여 차례를 지내고 팔죽을 먹는
다.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에서는 '동짓죽 아홉 그릇을 먹
고 나무 아홉 짐을 한다'는 말이 전해주듯, 이제는 나이
를 먹었으니 만사에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짓죽을 먹고 나서 집안에 벽과 주변 사방에 뿌려 집안
의 잡귀 잡신을 몰아낸다.

동짓달에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께 들면 "노동지"라 하는데, "애동지"때에

天地神 · 조상에게 제사
올리던 '작은설'
서구문화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넘겨줘

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는 속신이 있어 죽보다는 팔떡을 해 먹는다. 동짓날의 팔죽은 시절식(時節食)의 하나이면서 신앙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즉, 팔죽에는 귀신을 쫓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으니 집안의 여러 곳에 놓는 것은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모조리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팔은 색이 붉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陰鬼)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널리 활용되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물에 팔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이튿날 빈 상여놀이 후에 팔죽을 쑤어 먹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재앙이 있을 때에도 팔죽, 팔떡, 팔밥을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과거에는 동지와 함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기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한해를 정리하고 다음해를 맞이하는 것이 동지에서 크리스마스로 변화하였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반성과 돌아올 한 해에 대한 희망은 변함없으리라.